사찰 · 복지관 추석맞이 나눔 풍성

서울 조계사, 500가구에 간편식 등
신흥사, 3500만 원 상당 자비나눔
복지관선 공동차례지내기 등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9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2022 추석 한가위 마음나눔전' 을 갖고 종로구청에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은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쌀과 과일, 송편 등 추석 선물 전달을 비롯해 전통놀이 한마당,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은 9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2022 추석 한가위 마음나눔전' 을 갖고 종로구청에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따듯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사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준비한 마음나눔 상자 500개 속에는 참치와 국수 등 간편식과 영양제,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초코과자, 세면도구 등이 각각 담겼다. 마음나눔 상자는 종로구 17개 동 취약계층 340가구와 장애인 160가구 총 500가구에 전달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지역 이웃들이 선물을 받고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채숙 종로구청 부구청장은 "매해 추석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주는 조계사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복지 포교 불사에 앞장서 온 설악산 신흥사(회주 우송)는 이웃이 다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43회 '자비나누기는 행복더하기입니다' 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한 온기로 채웠다.

신흥사는 8월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속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속초시청에 3500만 원 상당의 햅쌀과 과일선물세트, 상품권 등 선물을 총 350세대에 전달했다. 우송 스님은 "몇 년째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명절임에도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들의 정성이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양식을 대접했다. 재단은 9월 7일, 서울 원각사(주지 원경)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300여 명에게 불고기를 배식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배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을 비롯해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인 스님은 "무더위가 끝나자마자 닥친 태풍피해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보충을 위해 불고기를 준비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과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불고기와 밥, 반찬을 넉넉히 담아 배식했다. 또 공양을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라며 빵과 음료, 마스크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000여 가정에 우리 장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우리 장 선물세트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지는 물론 전달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정서적 지지망 구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세월의 지혜와 노하우를 갖고 우리 콩으로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각 가정에 제공된 장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함께 지원함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추석맞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공동차례지내기를 포함해 비석치기, 투호와 같은 전통문화 한마당, 축하공연, 지방써주기 등을 진행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만큼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동참해준 덕분에 풍성하고 의미있는 명절 행사를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읍 내장사, 백운선사 다례재

9월 3~4일, 내장산 워터파크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 등재 2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3일과 4일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정읍 고부면 출신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저술한 백운 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재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 해외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도 함께 열렸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대표 호산)와 정읍시가 주최하고 내장사(주지 대원)와 백운선사직지심체기념사업회(회장 대우), 생명나눔문화(대표 도제)가 주관한 이번 행사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호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인 직지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백운 선사 다례재를 열게됐다"며 "이주민과 불교계, 우리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희망찬 미래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종본찰 봉선사, 첫 교리경시대회 연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가 첫 교리경시대회를 연다. 봉선사는 10월 1, 2일 양일간 경내 청풍루에서 '제1회 교리경시대회- 도전, 큰말씀 겨루기' 를 개최한다.

교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봉선사 개산 1053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경시대회는 제25교구 본말사 신도와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총 3그룹으로 운영된다. 10월 1일 오후 1시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시대회가, 오후 3시에는 청소년 대상 경시대회가 각각 열린다. 개산대재일인 10월 2일 오후 1시에는 일반부 경시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진행은 나란다축제의 '도전, 범종을 울려라' 와 동일하며 출제 범위는 조계종본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일반상식 전반에서 이뤄진다. 봉선사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포교활성화를 위해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한다"면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만사, 울산해양경찰서에 의약품 전달



대중불교조계종 총본산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는 9월 3일 추석을 맞아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 직원 및 함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비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으로는 라면 50박스 ,일상 의약품 500만 원 상당이 포함됐다.

천만사 주지 향덕 스님는 "울산지역민들과 해양 종사자 안전을 위해 힘쓰는 울산시 해양결찰서와 함정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여 항상 무탈하고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생활하는 함정 직원들에게는 의약품과 물품이 필요하다"며 향덕 스님에게 감사를 전했다.

향덕 스님은 7월 27일 유기견 보호소 후원금 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4월 26일 지구의날 52주년 글로벌환경포럼에서는 환경오염 해결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반야사, 마산 회원구청에 백미 나눔



반야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일 대웅전 앞에서 제24회 사랑의 백미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마산 회원구청에 600만 원 상당의 쌀 170포를 기탁했다.

기탁된 쌀 170포는 마산 회원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가정 및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반야사 혜명 스님, 경문스님, 박명종 회원구청장 및 관계자, 반야사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혜명 스님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밝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모두가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서원한다"고 했다.

혜명 스님은 이어 "매번 설, 추석이면 사랑의 백미 전달을 하지만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지속적으로 김장김치 나눔 등 자비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입실건당법회



8월 31일 총본산 영양 관법사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은 8월 31일 총본산 영양 관법사에서 입실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서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암도 스님과 종단 원로인 체법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다.

이날 암도 스님은 "참된 수행은 계 · 정 · 혜의 삼학을 기초로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시대가 불교에 요구하는 사상이 일상 속에서 생활불교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생활불교 속에서 인성의 꽃이 활짝 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요 화엄의세계"라며 "입실 건당 스님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충실히 각자의 위치에서 분별심 없는 수행자로서 용맹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